

탁월함을 담은 차이니즈 뉴 이어

블랑팡의 트레이디셔널 차이니즈 캘린더(Traditional Chinese Calendar)는 중국 전통에서 비롯된 고대 태음태양력의 기본 원리를 그레고리력 날짜와 함께 접목한 위치메이킹의 걸작이다. 음력설을 기리기 위해 블랑팡은 12 간지에 등장하는 첫번째 동물이자 행운과 번성을 의미하는 쥐를 담은 이 컴플리케이션의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을 공개한다.

블랑팡은 트레이디셔널 차이니즈 캘린더를 통해 시간을 해석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을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도전을 감행했다. 이 타임피스 안에 음력 관련 인디케이션과 그레고리력 날짜를 함께 담아낼 수 있기까지 무려 5년 간의 연구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다. 두 캘린더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기술적으로 진정한 위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레고리력은 태양일(solar day)을 기준으로 하며, 태음태양력은 29.53059일로 이뤄진 음력 주기를 기반으로 한다. 음력 12달은 태양년(solar year)에 비해 약 11일 정도가 짧다. 음력에서는 계절의 주기와 맞추기 위해 매 2년에서 3년마다 윤달을 추가한다. 음력설의 날짜가 계속해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음력의 복잡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레고리력에서 각각 60분으로 이뤄진 24시간을 음력에서는 2시간씩(double hour) 12개로 나누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각각의 2시간이 12 지지(earthly branches)로 순서에 따라 이름이 붙여져 있으며, 동물 띠 중 하나가 이를 각각 대변하고 있다.

이 모든 정보를 블랑팡 트레이디셔널 차이니즈 캘린더의 그랑피 에나멜 다이얼 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올해의 동물인 쥐는 12시 방향 창에서 등장한다. 아래에는 숫자와 심벌로 표시한 더블 아워 카운터가 자리하고 있다. 10천간(celestial pillars)과 5원소가 3시 방향에 표시되어 있고, 9시 방향의 2개 바늘이 월과 날짜를 가리킨다. 또한 윤달을 알려주는 창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음력에서의 월을 결정하는 동시에 블랑팡 캘린더 모델의 상징적 요소이기도 한 문페이즈는 6시 방향 창에서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인디케이션과 함께 블루 스틸 세르펜틴 바늘이 챌린저 주위를 가리키며 그레고리력 날짜를 알려준다.

퍼페추얼 캘린더보다 훨씬 복잡한 이 타임피스는 셀프와인딩 3638 무브먼트에 의해 구동된다. 고성능 스프링을 탑재한, 짝을 이룬 세 개의 배럴 덕분에 7일 파워리저브 가능하다. 오작동으로 인해 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했다.

이 특별한 무브먼트는 크라운과 카보송-컷 루비로 장식한 로터를 갖춘 45mm 플래티넘 케이스 안에 탑재되어 있다. 특허를 받은 블랑팡의 발명품인 언더-러그 커렉터를 5 개 갖추고 있어 별도의 도구 없이 손가락 끝으로 캘린더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스의 더블 스텝 베젤 뿐 아니라 로마 숫자 골드 아플리케 인덱스와 컷-아웃 세이지 앞 형태 바늘 등에서 빌레레 컬렉션의 정교하고 타임리스한 디자인을 엿볼 수 있다.

50 피스 한정 생산하는 이 타임피스는 올해의 띠인 쥐를 화이트 골드 로터에 인그레이빙했다. 각각의 시계 모두 르 브라쉬스 매뉴팩처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워크숍의 마스터 워치메이커 한 명이 조립하고 손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한다.

블랑팡의 트레이디셔널 차이니즈 캘린더는 기묘세 디테일의 로터를 탑재한, 비한정판 레드 골드 버전으로도 만날 수 있다.